담양군, 축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조사료 품질검사 실시

내달까지 조사료생산경영체 · 희망농가 대상

담양군농업기술센터가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사료비 절감 등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료 품질검사를 오는 20일부터 내달까지 추진한다.

조사료 품질검사 사업대상은 23개 경영체, 1,150ha이며 조사료생산경영체에서 유통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조사료와 TMR(섬유질배합사료) 이용은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가소비용은 희망하는 경우 가능하다.

조사료 품질검사 경영체 및 희망농가는 조사료 500g을 3cm 가량 세절한 후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비닐봉투에 밀봉해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품질검사는 근적외선 분광기를 이용 수분함량, 상대사료가치, 조단백질, 조회분 등의 성분 분석을 통해 조사료의 품질을 평가하며, 품질검사 결과는 품질등급에 따른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자료로 활용된다.

이병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조사료 경영체의 인식부족과 기상여건 등으로 수분함량이 많고 품질이 고르지 못한 조사료가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사료 수확 후 충분히 말리고 흙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흥군, 득량만 전복 종묘 6만미 방류

장흥군은 지난 16일 대덕읍 내저항 인근에 전복 종묘 6만미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류행사는 연안해역의 어족자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적극 대응을 하고 경제성 있는 어족자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4cm 이상의 건강한 전복 종묘를 매입하여 연안 해역에 방류했다. 전복 방류행사에서는 어촌계주민과 어촌계장단, 장흥군, 수산 유관기관, 장흥군해양구조협회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방류행사 이후에는 전복 치패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어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장흥군에서는 2007년 5월부터 방류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감성돔, 전복, 점농어 어린고기 174만미를 방류했다.

장흥=송호빈 기자

강진군, 소득 유망과수 육성 · 지원 나서

레드향 · 체리 · 샤인머스캣 포도 등 소득작목 기대주

단감, 배 등 주요 과일의 소비부진과 가격하락, 수입과일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강진군에서는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한 소득유망과수 육성 지원에 나서고 있어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작목은 샤인머스캣 포도이다. 기존 도암면에서 1농가가 하우스재배로 소득을 올리고 있던 것을 최근 군의 지원으로 성전면 등 5농가 2ha로 면적을 확대해 2~3년 후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이루질 전망이다.

샤인머스캣은 일명 망고 포도로 알려져 있다. 일반 포도보다 알이 굵고 당도가 높다. 씨가 없고 껍질째 먹는 청포도로 특유의 맛과 향으로 인기가 높다. 최근 동남아, 중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수출 주력 포도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도 소비 수요가 늘어나는 등 포도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군에서는 미래유망과수 사업으로 샤인머스캣 포도 외에, 체리, 애플망고, 레드향 등을 중점 보급하고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해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역 적응성과 시장성 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차후 강진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품목으로 집중 육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까지 30여 농가, 12ha의 면적을 확보하고 시설하우스, 묘목 및 자재지원,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활용 방치 하우스를 활용한 아열대 및 소득유망작목 재배도 본격 추진한다. 시설재배에는 하우스 신축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나 농경지 주변 방치된 하우스에 개보수비를 지원해 이를 재활용하면 농가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소득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

한편 이승옥 군수는 지난 16일, 성전면과 도암면 샤인머스켓 포도 시설재배 3농가를 찾아 농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김영일 기자

'제3회 여수음악제' 성공 예감…예년 대비 지원자 23.6%↑

8월 29일~9월 1일 예울마루 등서 KBS교향악단과 공연 펼쳐

제3회 여수음악제 음악학교 지원자가 예년 대비 23.6% 증가하면서 행사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지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학교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89명이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분야 별로 보면 현악기가 55명, 목관악기가 22명, 금관악기가 12명이었다.

시는 이러한 결과를 여수음악제의 전문성과 효과가 시민에게 충분히 알려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음악학교 참여 학생들은 KBS교향악단 전·현직 단원의 음악레슨이 자신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BS교향악단과의 개막식 협연도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자 추억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여수시는 18일과 19일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음악학교 지원자를 대상으로 오디션을 진행했다.

시는 오디션 통과자를 오는 22일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25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6월에서 8월까지 매주 주말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음악수업도 진행한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군민의상, 신선 호남대 초빙교수 선정

완도군은 지난 14일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완도군민의 상' 교육 및 문화체육부문 수상자로 신선(50세, 호남대학교 초빙 교수)씨를 선정했다.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는 교육 및 문화체육부문에 1명, 명예군민에 4명이 추천되어 '완도군민의 상 선정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석위원 중 2/3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선정했다.

군민의 상 수장자로 선정된 신선씨는 호남대학교 초빙교수이며, 화가로 활동 중이다.

완도를 비롯한 호남 지역을 소재로 한 작품 활동을 통해 고향 알리기에 앞장서 (사)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에서 선정하는 제1회 호남을 빛낸 인물(문화예술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전국적으로 박람회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2016년 완도수산물대제전, 2018~2019년 완도 매생이 팔아주기 운동, 2018~2019 청정완도수산물대전 등에 참여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에도 기여했다.

한편, '2019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시상식은 오는 31일 진행되는 제48회 '완도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완도=김광수 기자

영암군, 청년 동아리 지원 사업 모집 안내

영암군이 지역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청년 문화 활동의 지원을 위해 2019년 청년 동아리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번 '영암군 청년 동아리 지원 사업'은 2019년 신규 발굴·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5개 팀을 모집하여, 청년창업·문화·농업·지역특산품먹거리개발 등을 주제로 한 신규 사업 발굴 활동에 대해 팀당 최대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기간은 24일부터 31일까지다.

영암=조대호 기자

화순군 하수도 공기업, 고객만족도 '전국 1위'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사업 최고 득점

화순군 하수도 공기업이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99곳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지방공기업 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전문업체에 의뢰해 매년 시행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다.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등 5개 분야를 일괄 설문지 방식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화순군 하수도 공기업은 조사 결과 전국 99기관 중 최고점을 받아 1위에, 화순군 상수도 공기업은 전국 119기관 중 22위에 올랐다.

화순군 관계자는 "내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더욱더 고객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